

고흥군민 84% “민선 8기 군정 운영, 잘하고 있다”

郡, 1주년 맞아 군정 만족도 조사...10명 중 8명 ‘긍정’ 평가 우주항공·관광인프라·복지체계 등 지역 발전·복지행정 호평

고흥군민 10명 중 8명이 민선 8기 고흥군의 군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고흥군에 따르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군정 운영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군민 1천99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5일 3일간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군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민선 8기 고흥군이 군정 운영을 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84.3%로 높게 나타났고, ‘잘 못하

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5.7%에 그쳤다.

군정 만족도는 남성 81.7%, 여성 86.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88.6%로 가장 높게 나왔다.

군민들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지정 및 국가산단 유치 등 ‘우주항공 관련 시책 추진’ ▲2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고흥 휴양빌리지 투자협약 등 ‘관광 인프라 조성’ ▲노인 일자리 확대와 보건지소 지원 ‘충족한 복지체계 구축’ 등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 행정을 좋게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 만족도는 우주항공 시책 추진 만족도 88.4%, 관광 인프라 조성 및 관광 산업 육성이 89.1%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어 충실한 복지체계 구축이 87.7%, 도로교통 및 정주기반 확충이 87.8% 순으로 나타났다.

군 발전을 위해 군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는 전체 100% 중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21.7%로 가장 높았고,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의 도약 20.1%, 관광인프라 조성 및 관광 활성화 18.9% 순으로, 군민의 절반 이상이 경제산업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높은 군정 만족도를 보여준 것은 군민 통합과 고흥 변화·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발전에 노력한 데 공감한 결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고흥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군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등록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고흥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9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와 자동응답 방식을 병행했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 ±2.96%p다. 표본추출은 올해 5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라 셀가중을 적용했다. /고흥=최봉환기자

日 오염수 방류 임박...여수시, 수산물 안전성 확보 ‘총력’

TF팀 구성·휴대용 측정기 구입 수산물안전센터 건립 추진

여수시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증대와 함께 해양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계뿐 아니라 연관 산업과 관광분야까지 막대한 피해가 전망된다.

이에 여수시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의 수산물 안전성 대응계획과 연계한 별도 자체 세부대응 계획을 수립, 수산관련 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가장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비 2천만원을 투입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4대를 구입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본격화되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응전담 TF팀 구성, 위판장·전통시장 등 수산물 취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휴대용 측정기를 활용한 방사능 측정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초부터 후쿠시마 원



여수시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 제공)

전 오염수 방류의 심각성을 인식,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 구축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수산물안전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확보 시 시비를 투입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충남도와 제주도에서 현재 시행 중인 어업지도선 내 냉각수를 이

용한 해수 실시간 방사능 측정 시스템의 시 어업지도선 내 설치를 관련 업체와 검토 중이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신속히 도입해 독자적 해수 방사능 감시를 통해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달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수산 단체·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다수 어업인들이 수산물 소

비 위축 시 현실적인 손실 보상, 정부수매 등을 요구함에 따라 피해보상안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성기자

담양 ‘대숲맑은 친환경 쌀’ 서울 학교급식 연간 100t 공급

초·중·고교 61개소에 오는 9월-내년 8월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서울시 노원구 학교 밥상에 오른다.

담양군은 “최근 서울시 노원구 친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담양군농협통합RPC)이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선정돼 노원구 초·중·고교 61개소에 연간 100t의 쌀을 공급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간 1천여을 서울시 성북구 등 학교급식에 공급하며 친환경 쌀의 맛을 인정받고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담양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친환경농업의 중심지로서의 청정 담양군을 다시 한 번 알리



는 계기가 됐다.

이병노 군수는 “담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앞으로도 대도시 아이들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순천시,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농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체험

순천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지로 선정돼 총 2개소에 국비 60여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스마트농업 창업에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온실) 임대를 통해 농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경영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총사업비 8억5천800만원(국비 70%·지방비 30%)을 투입해 승주읍 서평리 일원에 약 4천㎡ 규모의 스마트 온실 2개소를 올해 말까지 조성할 계획

이다.

노관규 시장은 “청년 농업인이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 없이 영농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순천시가 명실상부한 스마트농업 전 초 기지로써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대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경영실습 임대농장뿐만 아니라 농업계학교 스마트팜 실습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순천=정기기자

화순군, 장마철 대비 특별감시활동 실시

폐수 배출사업장 등 대상...각종 불법행위 집중 단속

화순군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장마철에 폐수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주요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폐수 무단 방류 행위 ▲가축분뇨 무단 배출행위 ▲고질 민원 발생·반복 위반 배출사업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군은 필요 시 시료 채취·분석을 통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단속 결과 미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사법 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1단계는 사업장 자체 환경관리 강화

/화순=이병철기자

를 위해 오염행위 예방 사전홍보 및 계도문을 발송하며 2단계는 사업장 특별 감시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 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남 녹색 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복구 및 공정 진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과 장마철은 수질관리가 취약한 시기인 만큼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고시

지원 대상 품목 쌀·고추·옥수수 등 12개

곡성군은 “최근 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이 이뤄졌으며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됐다.

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상품 기준으로 2020~2022년 3개년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해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 품목은 쌀, 고추, 옥수수,

딸기, 멜론, 토란, 잎들깨, 매실, 사과, 배, 감, 한우 등 총 12개다.

곡성군이 결정한 2023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은 (1kg 기준, 한우는 지육단가) ▲쌀 2천465원 ▲건고추 1만7천772원 ▲꽃고추 2천612원 ▲옥수수 916원 ▲딸기 7천44원 ▲멜론 2천772원 ▲토란 1천645원 ▲잎들깨 6천889원 ▲매실 1천602원 ▲사과 2천152원 ▲배 2천284원 ▲감 1천788원 ▲한우(비육우/암) 1만9천254원 ▲한우(비육우/수) 1만9천123원 ▲한우(비육우/거세) 2만120원이다.

군 관계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통해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업인 소득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으로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에 어려

움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됐다.

관내 주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도매시장 가격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곡성=이호산기자



장성군, 삼서면에 ‘농어촌 공중목욕탕’ 건립

다목적센터 앞 광장부지...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장성군이 목욕시설이 없던 삼서면에 농어촌 공중목욕탕 건립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27일 “삼서면 다목적센터 앞 광장부지(대곡리 929-2)에 330㎡ 규모 농어촌 공중목욕탕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잔디 재배 농가가 많은 삼서면은 일과 후 목욕이 필요함에도 마땅한 시설이 없어 주민 불편이 컸다. 목욕을 하려면 삼서면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삼서면 전체 인구의 38%가 고령 주민이다 보니 이동만치 않다.

장성군은 삼서면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요청사항을 취합해 전남도에 수차례 건의한 끝에 올해 공중목욕탕 신축사업대상지로 단독확정되는 성과를냈다. 도비 약 2억원을 확보한 군은 관련 행

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준공 시기는 2025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삼서면 주민 김모 씨는 “농사 후 피로를 풀 목욕탕이 마을에 생기게 돼 기쁘다”며 “이웃들도 목욕탕 건립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공중목욕탕이 완공되면 다목적센터, 파크골프장과 인접해 삼서면의 건강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면 소재지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중 군수는 “공중목욕탕 건립을 통해 삼서면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타 지역 우수 사례를 연구하는 등 삼서면에 특화된 목욕탕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태기자